

# 상상계와 문화 원형 연구

## —수 원형과 만다라

김희경

### 1. 연구 배경과 목적: 인식의 변화와 문화의 원형적 의미

#### —인류 공통의 의미론

질베르 뒤랑은 “20세기는 인식론적 전복의 세기다”라고 주저 않고 말한다.<sup>1)</sup> 고전적 합리주의가 약화되고 상징 혹은 상상계의 은하수의 인력 속에서 가장 깊은 현대적 사고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20세기 벽두에 발견된 상대성 원리나 양자 역학은 뉴턴의 기계론적 역학과 유클리드 기하학에 토대를 둔 고전 물리학을 문제삼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제까지 서구 인식론을 이룬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원론에 바탕을 둔 고전 논리학과 철학 또한 그 영향력의 범위를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고전 물리학에서 하나의 대상을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믿음은 첨단 물리학에서 그 대상을 드러내주는 체계와 관찰의 과정에 따라 그 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냄으로써 그 한계성을 드러내게 되었다. 더불어 시간과 공간의 개념도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이 고

---

1) G. Durand, *Introduction à la mythodologie*, Albin Michel, 1996(유평근 옮김, 『신화 비평과 신화 분석』, 살림, 1996).

착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서구 인식론의 주류였던 주객관을 나누는 이분법에 기초를 둔 합리주의,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발전한, 특히 19세기 산업 혁명 시기에 그 절정에 다다른 '과학적 실증주의'의 막강했던 유효성을 토대에서부터 흔들기 시작하였다.

다른 한편, 인문과학에서도 20세기 초반에 첨단 물리학의 발견과 버금가는 위대한 발견이 이루어졌으니 그것은 '무의식의 발견'이었다. 첨단 물리학에서 아원자 세계의 발견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물질 세계의 확장을 가져왔다면, 무의식의 발견은 우리 정신 세계의 확장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과학적 합리주의는 우리의 인식 능력을 의식 기능에 한정하였을 때만이 유효한 방법이다. 서구 사상사에서 합리주의가 주류로 자리잡을 때까지 역사에서 이루어진 '성상 파괴와 탈신화화'의 움직임, 다시 말해서 상상계 l'imaginaire의 억압<sup>2)</sup>은 '의식 기능만의 강화'의 역사와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인간 정신은 표면에 떠오른 자아 의식의 심층에 무의식적 정신 활동을 포함한다는 넓은 의미의 심리학적인 발견들—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융의 분석 심리학 혹은 심층 심리학을 포함한—은 근대 사상의 관념화가 놓쳤던 잃어버린 정신적 영토를 회복하려는 노력들의 계기가 된다.

이러한 학문적인 위대한 발견들 말고도 서구의 합리주의적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게 하는 물리적 현상이 있었으니, 그것은 이미지를 생산하는 과학 기술의 발달이었다. 사진의 발명과 더불어 영상이 재생산되는 기술은 오늘날까지 끝을 모르게 발전하고 있다. 천연색 사진, 활동 사진(영화), (컴퓨터 조작 과정을 통한) 합성 사진 등등은 우리의 삶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재현하여 전달해주는 수준을 이미 넘어 '비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또 다른 세계를 제시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를 두렵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도 공적인 교육이 객관주의적 방법에

2) G. Durand, *L'Imagination symbolique*, P. U. F., 1964의 Chap. 1: 'La Victoire des iconoclastes ou l'envers des positivismes' 참조.

의존하는 실증주의적 교육을 하고 있다면, 거칠 것 없는 이미지의 홍수는 '경제 수위가 허락하는 한에서의 반항'을 대중 매체를 통해서 쏟아내고 있다. 공허한(권위 없는) 규제와 방향키를 잃은 방종 사이에서 우리의 문화는 깊이 있는 의미를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다.<sup>3)</sup>

이러한 배경에서 질베르 뒤랑이 지적하는 '신화의 귀환 le retour du mythe' 현상, 또는 '상상계의 은하수의 인력'이 작용하는 새로운 장을 우리는 직면하게 된다. 신화를 간단하게 말해보면, 동시성에서 대립되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나타내는 주요 심상들 grandes images을 화해시키며 가장 궁극적인 '의미'로 끌고 가려는 인간 정신의 일관성 있는 cohérent—다시 말하면, 자체 논리가 있는—배열 혹은 구성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인간 정신의 구조화 작업 structuration이 드러나는 형상화 configuration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상징적 상상력이 작용하는 상상계·심상·상징·원형 등의 개념은 가장 넓은 의미의 신화의 내용물로서 등장하게 된다. 신화는 심상의 상징적 의미를 살아 있게 하는 구조물이다.

신화가 영속적으로 현실로 회귀하며 그 실재함을 드러내는 것은 인간 정신의 상상력의 힘을 보여준다 하겠다. 인간은 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이 상상력을 잘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억압된 무의식이 개인 정신의 병을 유발하듯이 억압된 공동체 의식은 인류의 재난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화학 mythologie과, 신화학의 장을 이루는 상상계 연구는 현대의 개인에 있어서나 사회 전체에 있어서나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회 의식(집단적 의식)이 표출된 표상들의 조절 체계로서의 문화 역시 그 내용의 바탕을 신화에 뿌리박고 있다. 문화의 창조와 신화의 재발견은 다양한 형태의 창조와 한정된 단위 조합으로 이루어진 내용으로 항상 양면을 이루고 있다. 재귀하는 신화가 항상 재발견되는 것은 인간의 잠재적

3) G. Durand, *Introduction à la mythodologie*, Albin Michel, 1996의 Chap. 1: 'Le Retour du mythe: 1860~2100' 참조.

본성은 한결같은 것이기에 그렇다. 융처럼 말한다면 인간 정신은 한결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융은 이러한 인간 정신의 선형적 구조, 선형적 조건을 ‘원형 archétype’ 이라고 이름짓는다. 신화는 원형 심상들로 이루어진다. 문화 현상에서 우리는 문화의 옷(심상들) 속에 감추어진 원형적 구조를 걸러낼 수 있고 그 원형은 그 문화의 의미와 연결지어진다. 우리가 문화 원형을 탐구해야 함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재귀하는 신화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무색하게 한다. 현대의 첨단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를 뒷받침해주는 모델들을 고대의 동양 철학이나 서구의 근대 사상 이전의 연금술에서 찾았다는 것은 시간의 차이와 공간의 거리를 넘어 인류 공통의 정신 문화 유산에서의 신화와 원형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sup>4)</sup> 더욱 흥미로운 것은 자연과학자들이 그들의 근거를 고대의 인문학과 종교에서 찾았다는 점이다. 현대 사고에서 서구 사상의 바탕을 이루는 물질과 정신이라는 이원론은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다. 첨단 물리학이 이제야 물질의 과학적 사실의 상대성을 의식하였다면, 동양의 고대 사상과 서양의 근대 이전의 신비주의(예를 들면 연금술)는 그 사고의 바탕을 더 멀리 더 깊게 두고 있었으니 그 세계는 우주적 몽상으로 가득 찬 상상 세계였다. 그들의 상상 세계에서는 근대 사고의 두드러진 특징인 분리성이나 정태적인 개념화보다는 대립을 통합하는 통일성과 역동적인 구조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로 이러한 특징들이 현대 인식론적 혁명과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현상이나 물질의 시공적 위치 결정 개념이 ‘불확정’<sup>5)</sup>해지는 그곳에 ‘상징적 의미’가 자리잡게 된다. 뒤랑은 그의 ‘상상’에 대한 방대한 저서에서 “상상의 영역에서 심상은 상상적 의미 작용의 테두리 밖에서는 찾아낼 수

4) 예를 들면 닐스 보어 Niels Bohr는 중국 도가의 음양론에 관심을 가졌으며, 코스타 드 보르가르 Costa de Beauregard는 힌두교의 형이상학에 이끌렸다. 더 자세한 양자 관계에 대해서는 카프라 Capra의 『현대 물리학과 동양 사상 The Tao of Physics』을 참조.

5) 하이젠베르크의 양자 역학에서의 ‘불확정성의 원리.’

없는 하나의 의미를 자체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상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심상의 본질을 이루는 상징 속에는 역동적 구성력 *dynamique organisateur*을 바탕으로 하는 기표와 기의의 동질성"이 있어 인위적으로 주어진 하나의 의미 이상의 비유적 의미 *sens figuré*을 갖고 이러한 의미는 자발적인 존재적 울림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sup>6)</sup> 이렇게 심상이 규정된다면 우리는 단번에 심상의 의미 연구에서의 '상상적 의미 체계' '상상의 상징 체계'라는 문제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상징의 의미론적 생성 과정은 언어 기호가 지니는 특성인 자의성 *arbitraire*과 선조성 *linéarité*에서 벗어나 다차원적인 동기 부여 *motivation*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의미란 여러 층위가 있을 수 있다. 표면적인 위치 결정이 가능한 의미만을 전달하는 것은 가장 좁은 의미의 굳어진 기호일 것이다. 하지만 생동하는 상징은 상징 표 *symbolisant*라는 구체적인 표현 양식이 필요하지만 그 표현이 우리의 정신에 닿을 내려 건져올리는 의미(상징의 *symbolisé*)는 그 깊이에 있어 물질적인 층위, 개인적인 층위, 사회적인 층위, 우주적인 층위, 종교적인 층위 등등으로 다룰 수 있다. 이렇게 하여 현대 학문은 많은 분야들로 분화되어왔다.

요즘 들어, 첨단 물리학이 고대의, 그것도 동양 사상에 관심을 갖듯이,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공통의 의미'를 탐색하고 있다.<sup>7)</sup> 새로운 인식의 지평에서 가장 깊은 상징적 의미, 즉 인류 '공통의 의미'가 원형에 뿌리박고 있다는 것은 과학자들과 인문학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20세기 초에 인류의 발견 중 가장 큰 것으로 간주되는 핵물리학과 무의식이 발견된 이래 '정신과 물질의 통일성 문제'는 현대 물리학과 심층 심리학이라는 서로 다른 연구 영역에서 관심을 갖고 접근해가고 있다. 현대

6) 상징이 갖게 되는 존재론적 의미에 대해서는 줄고, 「상상계와 신의 현현(顯現)」, 『오늘의 문예비평』, 1996년 가을호를 참조.

7) 1979년 코르도바에서는 과학자들과 인문학자들, 그리고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술대회를 열었다(Colloque de Cordoue, *Science et conscience : Les deux lectures de l'univers*, Stock, 1980). 또 한편 심리학자인 융은 물리학자인 파울리와 공동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물리학의 상대성 이론에서 관찰자 문제의 대두나 융의 심층 심리학에서의 '공시성 현상'의 가설들이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융이 말년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공시성 현상'의 가설이 제시하는 '정신과 물질의 통일성' 문제를 수의 원형과 그에 상응하는 원형 심상을 통하여 살펴보려 한다.

## 2. 초기 자연수의 원형상

### I. 집단 무의식과 원형

융의 '공시성 현상'은 다른 그의 이론들과 마찬가지로 '집단 무의식'과 '원형'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무의식적인 것은 오래 전부터 사상가·시인 들에게서 예감되어왔다.<sup>8)</sup> 하지만 무의식의 발견에서 프로이트에게 되돌리는 공헌은 무의식을 과학의 대상으로 삼고 연구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프로이트가 노이로제 환자를 치료해나가는 중에 발견한 무의식은 현실 법칙과 맞지 않아 의식에서 떨어져나가 무의식의 내용이 되어버린 성적인 욕망과 관련된 억압이었다.

융에 있어서 무의식은 이보다 더 포괄적이고 목적 지향적이다. 인간 마음의 깊은 곳에는 창조적인 가능성을 지닌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 융의 생각이다. 이때의 에너지는 '방어해야 할 위험한 충동이거니와 체험하여 의식의 것으로 동화'해야 하는 것으로, 의식은 오히려 무의식이

8) 이부영, 『분석심리학: C. G. Jung의 인간 심성론』, 일조각, p. 50: "철학적으로는 라이프니츠 Leibniz에서 이미 그 개념이 도입되었고 칸트 Kant, 셸링 Schelling 등이 이에 언급했으며, 카루스 Carus가 하나의 이에 대한 체계를 세웠으며, 폰 하르트만 Edouard von Hartman은 그의 학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또한 Henri F. Ellenberger의 방대한 저서 *A la découverte de l'inconscient*에서는 '역동적 정신의학의 역사'를 추적하며 무의식의 발견의 역사를 추적해내고 있다.

지닌 지향적 의미를 찾고 그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달리 말하자면, 융이 체험한<sup>9)</sup> 무의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모르고 있는 우리 정신의 모든 것”으로서 의식 작용보다 더 항구적인 그 스스로의 법칙에 의한 ‘자율성’ 이, ‘창조적인 자율성’ 이 있어, 때로 미래에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고, 때로 의식에 결여된 것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대상 작용을 하기도 하면서 개체의 정신적인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융은 무의식을 두 가지 층으로 구별하여 생각하였다. 하나는 인간 정신의 구도에서 우리의 의식을 표면 쪽으로 생각한다면, 이 표면 쪽에 가까운, 의식 바로 아래에 위치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개인이 생활에서의 체험 내용 중에서 무슨 이유에서든지 잊어버린 것으로—그것은 억압된 욕망일 수도 있고, 심리적 경향, 감정 등 의식에 도달하기에는 그 힘이 미약한 지각 내용일 수도 있다—구성되는 층으로, 개인의 특수한 생활 체험과 관련되고 개인의 성격의 특성을 이루는 것으로 ‘개인적 무의식’이라 불릴 수 있는 층이다. 그런데 무의식에는 개인의 체험과는 무관한 ‘비개성적인 impersonnel,’ 그래서 ‘집단적’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의 심상이 종종 나타나는 체험을 발견하고,<sup>10)</sup> 융은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발견되는 보편적이고 생득적인 무의식의 심층을 상징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집단적 무의식’이라 이름지었다. 그리고 인간 마음의 깊은 심층을 구성하고 있는 이것을 ‘근원적 유형,’ 즉 ‘원형’이라 보았다.

‘현상에 선행하는 상위적인 이념 혹은 원상(原像) Urbild의 존재’를 상징했던 플라톤의 ‘이데아’와 유사한 융의 ‘원형’ 개념은 인간 정신의 선험적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정신의 구조’에 가까운 것이다. “원형은 보편적이고 반복적인 체험을 시공을 넘어 항상 재생할 수 있는, 인간 속에 있는

9) 이부영의 앞의 책에서는 “무의식의 개념은 머리로 생각해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경험을 토대로 얻은 사실에 붙인 이름”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점은 ‘원형’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10) Jung et Kerényi, *Introduction à l'essence de la mythologie*, Payot, p. 110.

그러한 가능성이며 그런 가능성을 지닌 틀이다.”<sup>11)</sup> 사람 신체의 각 기관이 이미 그렇게 형성되도록 조건지어져 있듯이 정신 psyché도 또한 그 자체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융의 생각이다.<sup>12)</sup> 이러한 정신 구조는 태곳적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반복되어나갈 인류의 근원적인 행동 유형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인간의 근원적인 행동 유형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의 밑바탕을 이루는 조건으로서의 원형을 생각할 때, 이 원형이 동시에 ‘역동적’인 존재 구조에 속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원형은 “단순한 지적 개념이 아니라 미증유의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이고 “이 에너지는 감동·공포 등의 강렬한 정동 반응(情動反應)으로 나타난다.”<sup>13)</sup> 자주 사람들은 이 원형을 보편적인 재현의 고정된 틀인 전형 prototype으로 간주하기 쉬우나, 원형을 문화·역사에서도 불변하는 구조 안에서 상징적인 요소들을 결합시키는 ‘역동적인 상une figure dynamique’으로 보아야 함은 이 때문이다. 게다가 정신적 차원에서 원형의 작용이 생리적 차원에서 본능이 행하는 작용과 유사하다는 비교 또한 원형의 역동적 특성에 그 강조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원형 구조는 정태적인 형태가 아니다. 본능만큼이나 자발적인 충동 impulsions에 의해 드러나는 역동적 요소들이다.”<sup>14)</sup>

11) 비개성적인 심상들은 전통이나 문화 이동에 의한 분산으로 때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 그 근원이 설명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생적 재창조’의 가설을 요구하고 있다고 융은 재삼 집단적 무의식 층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Jung & Kerényi, 앞의 책, p. 110 참조).

12) 융은 앞의 책의 다른 곳에서 바로 원형은 정신(마음)의 구조적 기관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Jung et Kerényi, 앞의 책, p. 117 참조: “On ne devrait jamais oublier que l'archétype est un organe psychique, présent chez chacun [...] (L'archétype), en effet, est un élément psychique structurel.”

13) 이부영, 앞의 책, p. 84.

14) Jung, *L'Essai d'exploration de l'inconscient*: “Les structures archétypes ne sont pas des formes statiques. Ce sont des éléments dynamiques qui se manifestent par des implusions tout aussi spontanés que les instincts”(Les Notions philosophiques dictionnaire, ‘Archétype’에서 재인용). 융에게 있어서 본능과 원형은 하나의 생명 현상에

원형을 인간의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 심리 구조라 한다면 우리가 원형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이 가능성의 구조가 의식적인 경험으로 채워져 그 내용이 심상image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원형은 마치 아직 아무런 물질로도 채워져 있지 않으나 그 구성 방향을 이미 결정하고 있는 결정체의 축계(軸系)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원형 자체가 아니라 ‘원형상’ 들 뿐인 것이다. 원형을 정태적인 어떠한 실체로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것은 원형의 역동적인 존재 구조를 잊고 현상으로 드러난 원형상에 한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오히려 원형의 그 역동적 특징으로 심상에서 역동적 힘을 발견해야 한다. 심상이 ‘살아 있는 언어’가 되는 것은 원형의 역동성 덕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II. 공시성 현상과 하나의 통일 세계

우리가 심상에 의미를 주는 ‘재현의 근원적인 범주들’로서 ‘수의 원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인간 심리가 만나는 ‘우주론적 상징’의 전망에서이다.

음이 ‘공시성의 현상synchronicité’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할 때, 중국 학자 리하르트 빌헬름Richard Wilhelm으로부터 중국의 『역경(易經)』의 사상 체계를 알게 되었는데, 그는 이 사상 체계에 인간과 세계가 함께 융합되어 있는 ‘우주론적 신화’가 표상되어 있음을 알고 놀라게 되었다

음은 “내부 정신 세계에서 떠오른 한 상징이, 예를 들면 꿈의 이미지, 깨어 있을 때의 비전, 무의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발적인 생각이나 환각이, 합리적이고 인과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외부

---

속하면서 집단적 무의식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난다. 다만 관념상으로 나누어보자면, “본능은 古慾의 衝動이며 원형은 하나의 觀이라고 구별하여 설명된다. 전자가 인간의 복잡한 행동을 일으키는 충동이며 情感이라면, 후자는 그 복잡한 행위를 선험적으로 파악한 견해, 또는 觀照의 특수한 양식들이다”(이부영, 앞의 책, pp. 90~91 참조).

세계에서 같은 의미의 사건과 일치”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인과 관계로가 아니라 공통된 동일 의미로 연결된 두 개 혹은 여러 개의 정신적 혹은 물질적 사건의 시간적 일치”를 ‘공시성 현상’이라 이름지었다.

우리가 ‘순수하게 주관적’이라고 알려진 정신을 외부 세계에 있는 ‘객관적’ 물질과는 다른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정신을 자아 의식과 동일시할 때만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융의 생각이다. 정신의 가장 깊은 하부층, 즉 원형들이 활성화된 집단 무의식에서는 심리 물리적 사건들이 관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하부층은 미지의 것과 물질까지도 포함한 모든 것을 함유하고 있다고 한다.<sup>15)</sup>

이러한 생각은 신화를 다룬 그의 다른 저서에서도 나타난다.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층으로 내려가면 개인적인 특수성은 사라지고 점점 집단적이 되어 보편성을 띠고 동시에 물질성에 확장되어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가장 깊은 저층에는 마음과 세계가 하나가 된다. 상징이 원초적이며 깊이 있는 것일 때 상징은 보편적이고 물질적이 되면서, 이 상징에 의해서 말하는 것은 세계 자신이 된다는 것이다.<sup>16)</sup> ‘집단 무의식’이라 이름지을 수 있는 인간의 깊은 내부에는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을 넘어서 ‘존재의 통일성’을 드러내 보여준다고 생각한 융은 이러한 ‘존재의 통일적 양상’을 ‘하나의 통일 세계 unus mundus’라고 불렀다. 최근 현대 물리학에서 관심을 갖는 ‘통일장’ ‘기하학적 연속체 continuum géométrique’ 개념도 이러한 ‘하나의 세계’의 탐구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동양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서양에서 이제야 관심을 돌리는 ‘통일 세계’라는 개념을 발견하고 발전시켜왔다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동양학에 관심이 있는 서양인에게 놀라운 것은 ‘변화의 서(書)’라고 불리는 동양의 고전인 『역경』에는 모든 존재가 궁극적인 토대, 즉 ‘모든 것을 포함하고 그 자체 내에서 규칙적으로 정돈되는 연속체’를 지닌다는

15) M.-L. von Franz, *Nombre et temps*, pp. 29~32.

16) Jung et Kerényi, 앞의 책, p. 134.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연속체는 감각으로 지각되기가 쉽지 않은 '재현할 수 없는 정신 물리학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존재가 분화되어 나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존재의 배경이 되는 이 우주적 연속체에는 역동성이 내재되어 있어 몇몇 심상의 분화를 낳게 되고, 이러한 심상은 그 구조나 그 위치 속에서 연속체의 규칙성의 특징을 갖고 자체 내에서 정돈된다는 것이다. 심상이 정돈되는 모습은 규칙적이므로 수의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공시성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론화할 수 있는 이러한 규칙성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Ⅲ. 단일 연속체의 시간성을 재현하는 수 원형

#### 1) 수 원형

음의 심층 심리학과 동양 사상에서는, 모든 존재는 그 보이지 않는 궁극적인 바탕에 '하나로 통일된 연속체'를 이루고 있고, 이 연속체는 그 자체 내부에 규칙적인 질서를 유지하도록 배열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음의 심리학에 있어서, 이 연속체는 집단 무의식으로 말해질 수 있을 것이고, 중국 철학에서는 우주의 태극이라고 불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의 연속체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구조상을 음은 원형이라고 하였고 동양에서는 변화해가는 양상을 64괘로 정돈하였다. 수는 바탕이 되는 이러한 연속체의 규칙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수는 인간 문명이 발달하면서 창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발견된 것으로, 우주의 신비에 접근 가능하게 하는 열쇠가 될 수 있고, 수가 양적인 계산만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바탕이 되는 연속체, 하나의 통합 세계는 잠재적이며 그 자체로는 재현 불가능하다. 원형들의 세계인 집단 무의식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이 잠재적인 구조는 우리의 의식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식이 인식 가능한 영역에 나타날 때는 심상이나 사고, 혹은 행동 방식 등의 형태들로 나타난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우리가 인지하는 것은 원형 구

조 자체가 아니라 원형이 재현된 원형 심상일 뿐이다. 단지 수많은 다양한 심상들의 심층에는 그 자체로는 재현되지 못하는 원형 구조가 전형적인 모델로 작용하는 것이다. 많은 경우 인간 정신에 떠오르는 원형 심상들은 그 형태의 영상(이미지)들을 외부 세계의 경험에서 빌려온다. 그런데 수의 상징이나 기하학적 상징들은 다른 형상적인 상징들보다 훨씬 추상적인 것이 특징이다. 그 추상성 때문에 수 원형은 원형 구조 자체에 더욱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잠재되어 있는 하나의 연속체의 규칙적인 질서,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원형 구조가 수의 형태로 인간의 의식에 떠올랐다면 그것은 우주의 질서와 우리 인간의 전의식 단계의 심리에 내재해 있는 질서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말과도 같을 수 있다. 이렇게 그 자체로 파악될 수 없는 정신과 물질의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추상성 덕분이다. 인간의 심리 현상과 자연 현상이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설은 오래 전부터 대우주와 소우주 간의 상동 관계를 상징하는 동서양의 사상에서 맥이 끊이지 않고 내려오는 전통이다. 이 대우주와 소우주 간의 상동 관계를 잘 나타내줄 수 있는 원형이 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순수한 배열 pur arrangement' 로만 이루어진 수 원형은 원형 구조에 바탕을 둔 다른 심상들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도 근거가 될 수 있다. 수는 하나의 통합 세계의 원형적 전체 질서를 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7)</sup>

## 2) 수와 시간

잠재되어 있는 하나의 연속체의 규칙성을 재현하는 수 원형은 모든 존재의 바탕이 되는 전의식적인 원형 구조와 관계되어 있다. 그런데 그 자체로 드러날 수 없는 단일한 전체 un-tout는 그 크기에 있어 다수의 다른 양(量)들로 나누어질 수 없다. 단지 이 전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성

17) M.-L. von Franz, 앞의 책, pp. 149~51.

질을 띤 양상들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일련의 양적인 수의 전개는 전체의 분할이 아니고, 단일 연속체의 시간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변화의 국면들이다.

사고 방식에는 인과적 사고와 공시적 사고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사고는 시간에 대한 관념이 다르다. 우선 인과적 사고에서는 선적으로 진행되는 시간을 따라 사건들은 계속적으로 전개해간다고 믿는다. 반면 공시적 사고에서는 어느 정해진 순간 주위에 여러 사건들이 모여 이루는 의미의 장을 이루게 된다. 이때 사건들은 어느 순간의 '성질을 띤 영역' 안에 놓이게 된다. 특히 중국 사상에서 잘 드러나는 이러한 공시적 사고에서는 인과성 *causalité*은 사건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의 의미의 일치성 *coïncidence*만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공시적 사고에 있어서 시간은 그 안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비어 있는 틀이 아니고, '성질을 띤 구체적인 연속체, 혹은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근본적인 조건들'<sup>18)</sup>이다.

이렇게 이해되는 질적인 시간의 다양한 양상들이 개별적인 숫자들이다. 다시 한 번 말하면, 수는 전체적인 하나가 시간에 따라 제 모습을 다르게 드러내는 양상들이다. 이렇게 본다면 중국 사상에서의 수는 서구 사대에서 했던 양적 계산을 위한 숫자로서만이 아니고, 질적 양상을 나타내주는 상징적 질서 안에 편입된다. 상황을 예측하는 『주역』이 잘 보여주듯 이 수를 통하여 공시적 사건들의 파악이 가능한 것도 수가 원형 구조가 지니는 상징적 질서를 재현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듯 수가 원형 구조의 내용을 구현하고 있다고 한다면 처음 10까지의 자연수는 특별한 개별적인 성질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기원을 멀리 플라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수의 개별적 성질에 대하여, 음은 수의 무한한 전개를 창조물들의 무한함과 대응시키고, 처음 10까지의 자

18) Jung, *Commentaire sur le mystère de la fleur d'or*, Albin Michel, 1979, p. 114.

연수의 성질은 하나의 모나드monade에서 시작되는 추상적인 우주 생성론cosmogonie을 나타낸다고 한다.<sup>19)</sup> 중국 사상에서 수의 원형 구조 역시 존재의 규칙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우주론의 반영으로 간주된다.

#### IV. 초기 자연수의 원형상<sup>20)</sup>

우리가 정신 세계와 물질 세계의 일치를 보여주는 공시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 수를 원용하려 하는 것은 수가 전체의 바탕이 되는 연속체의 구조적 성질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무한하게 전개되는 자연수들 중에서 그 구조적인 성질은 처음 10까지의 수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특히 5까지의 자연수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은 그 구조가 반복하여 확산되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5까지의 수는 개별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 개별적인 성질은 단일 연속체와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점은 정신과 물질의 세계 모두를 아우르는 이 단일 연속체가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힘들이 작용하는 바탕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연속체의 구조도 역동적이고, 이 구조적 성질의 양상을 추상화한 각각의 수들 또한 원초적인 힘의 규칙적인 리듬을 다양하게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대 중국에서 전래되어 중국 사상의 바탕에 자리 잡고 있는 하도(河圖)와 낙서(洛書)의 모형<sup>21)</sup>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모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하게 다루겠지만,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10까지의 자연수로만 이루어진 이 모형은 역동성과 성질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바탕 전체로 보아야 하는 일종의 행렬

19) C. G. Jung, *Ma Vie*, p. 353 (M.-L. von Franz, 앞의 책, p. 58에서 재인용).

20) M.-L. von Franz, 앞의 책: *La Structure des quatre premiers nombres* 참조.

21) 河圖는 黃河에서 龍馬가 등에 지고 나온 까닭에 붙여진 이름으로 河出圖라고도 하며 이것을 보고 三皇 중의 하나인 伏羲氏가 진리를 깨달아 八卦를 그어 伏羲八卦方位라 한다. 洛書는 夏의 禹임금이 洪水를 다스릴 때 洛水에서 나온 神龜의 등에 써어 있었다는 글로, 周文王이 作圖했기 때문에 文王八卦方位가 되고 伏羲의 뒤이기 때문에 後天方位라고도 한다(최창조, 『한국의 풍수 사상』, 민음사, pp. 156~59 참조).

matrices로서 우주론적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 행렬에서 순차적인 모습을 한 자연수들은 바탕이 되는 전체에 내재되어 있는 역동적 구조의 시간에 따른 국면들을 상징하고 있다. 이 수의 순서는, 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기하학적이고 율동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 우주 모형의 구도는 중국 철학의 음양오행론의 구도로도 그대로 적용되고, 더 나아가 실제적인 인간 범사의 구체적인 분석에서 분류의 모델이 된다. 이러한 구도 안에서 수는 자신이 표상하고 있는 상징성이 지니고 있는 묘사력으로 구체적인 현실의 지표가 될 수 있고 우리 삶의 의미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자연수들은 이러한 단일 연속체의 다른 성질들을 나타내는 양상 혹은 형상들로서 역동적인 정신 물리학적 모델로 이해되어야 한다.

뒤에서 5까지의 자연수들을 각각 살펴보겠지만, 먼저 원초적인 힘의 율동을 보여주는 활동성의 특징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조감하여본다면, 하나는 근원이 되는 전체성을 내포하고 있고, 둘은 나누고 반복하고 대칭을 이룬다. 셋은 대칭의 중심이 되어 진행될 전개의 출발점을 이룬다. 넷은 한계를 그으면서 개별적인 총체성을 가시화하고 또한 하나로 되돌아오면서 안정시키려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1) 전체인 단일 연속체로서의 하나

하나라는 수는 전체의 바탕이 되는 단일 연속체 그 자체와 여러 점에서 혼용하여 쓰인다. 그 자체로 배가 되거나 나눌 수 없는 하나는 분리될 수 없는 단일성·통일성·전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종교에서의 대부분의 유일신은 이 하나의 강조를 그리고 하나가 아님의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되면서 그 유일신은 '하나님'이 되었다. 그 호칭의 어원을 '하늘'에서 찾는 사람도 있겠으나 동양에서 하늘은 하나와 멀지 않은 개념이다. 또 다른 예는 서양 철학의 단자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양에서도 하나는 우주 생성 원리의 근본인 도(道)와 곧

바로 연결된다.<sup>22)</sup>

전체의 바탕을 이루는 장과 비견되는 하나는 모든 수의 전개에 참여하여 관통하게 된다. 여기에서 서양의 신(神)과 동양의 도에서 보이는 편재성 *omniprésence*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의식의 차원에서 개별적인 수들을 보면 불연속적으로 보이지만, 그 개별적인 성질을 띤 수들이 따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을 보면 단일 연속체 *contium unitaire*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음이 말하는 하나의 통일 세계를 이루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전체를 이루는 하나와 개별적인 하나는 다르다. 절대적인 하나의 통일 세계는 우리의 무의식처럼 결코 한정할 수 없는 것으로, 가늠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의 의식으로 인지할 수 없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것(타자 *l'autre*)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때 개별적인 하나가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인지 *connaissance*는 둘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2) 단일 연속체 리듬으로서의 둘

음은 하나는 아직 수가 아니고, 둘이 첫번째 수가 된다고 했다.<sup>23)</sup> 왜냐하면 둘부터 분리와 배가가 가능하여 순서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둘이야말로 셀 수 없는 전체로서의 하나에서 구별 가능한 개별적인 하나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인 하나에서 둘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개별적인 하나가 '수'가 된다. 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 다음에 다른 것이 들어와야 한다. 하나와 그것과 다른 것은 대립을 이루고, 그 사이에

---

22) 『노자』 42장: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주역』, 『繫辭上傳』: “이러므로 역에 태극이 있으니, 이것이 양의를 낳고, 양의는 사상을 낳고, 사상은 팔괘를 낳는다(是故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여기에서 태극은 시원이자 궁극인 통일체를 나타내는 하나라고 볼 수 있다.

23) Jung, *Symbolik des Geistes*(M.-L. von Franz, 앞의 책, p. 110에서 재인용).

서 일어나는 긴장, 대립되는 것끼리의 길항력에서 운동과 변화가 있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타자의 등장은 인지를 가능하게 하는 의식을 출현하게 한다. 인간의 의식을 통한 인지 작용은 불연속적이고 분별적인 개체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인지를 초월하는 단일 연속체에 틈을 낼 수 있는 이 '다른 것'의 개입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음악적 개념인 리듬에는 규칙적인 변화, 혹은 운동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우리는 앞서 단일 연속체가 정태적이지 아니라 역동적임을 지적하였다. 하나의 세계가 역동적인 구조를 갖도록 하는 것의 시초에 둘이 있다. 둘이라는 수를 단일 연속체의 리듬으로 정의한 것은 둘이라는 수가 전체 바탕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의미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역동성이기 때문이다. 이 역동성이야말로 모든 생물 현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특징이다. 생(生)이라는 개념은 종(動)이라는 의미를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물의 창조와 관련된 모든 우주 생성론과 태초의 전설, 그리고 건국 신화 등에 이원성 dualité이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멀리 있지 않다. 이때의 이원성은 평면적인 대립을 나타내기보다는 상보적인 짝을 이루는 '이중적인 통합체 bi-unité'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인도의 미트라 Mithra와 바루나 Varuna같이 양가성을 지닌 쌍둥이 신, 혹은 「창세기」에서의 텅 빈 무정형의 땅과 그 위를 나는 신의 정령'들과 같이 우리는 그 예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sup>24)</sup> 또한 거의 모든 문명과 종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죽음과 내세의 문턱에서 수호신 역할을 하는 두 악마 혹은 두 신상은 하나가 둘이 되는 과정인 창조와는 반대로 둘이 하나로 통합되는 내세의 입구에서 만나게 되는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최초의 창조에 관련된 둘이라는 수는 창조물로 간주된 물질 matière과 상징적으로 동일시된 전통이 있다. 창조에 필요한 타자는 역사에서 항상

24) '이중적인 통합체'에 대해서는 M. Eliade의 *Méphisophélés et l'androgyme*, Gallimard를 참조할 것.

그 역할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재미있게도 대부분의 언어에서 두번째라는 의미를 갖는 이 타자<sup>25)</sup>는 적대적인 외부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항상 선과 악의 이항 대립 구조에서 나타나는 서양에서의 악마 diable는 분리한다는 의미에서 둘이라는 수와 관련이 있다. 기독교 전통에서 물질과 육체를 죄악시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서양의 이분법이 너무 정태적이고 평면적인 대칭적 분할에 고착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수학적 관점에서 발견되는 둘이라는 수에 내포되어 있는 양면 대칭 symétrie bilatérale은 물리학의 힘의 장력이 고려된 극성(極性) polarité의 개념을 같이 고려할 때만이 전체의 하나와 연결되어 자연의 생명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항상 자기(磁氣)의 역동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고 전체의 자장(磁場) champ magnétique 안에서 작용하는 극성이라는 물리학적 개념은 전체의 하나와 둘이라는 수가 갖는 관계를 가장 잘 보여준다. 역동적인 둘이라는 수의 원형이 이끌게 되는 위성 이미지들은 진동, 혹은 수축과 이완의 리듬으로 나타나는 심장의 박동, 그리고 반복 교체되는 리듬을 지닌 이미지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역동적인 이미지들을 볼 때 이항적 관계는 대립적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이다.

동양에서는 이러한 상호 보완적인 이항 관계가 사상의 근본이 되는 우주론에 자리잡고 있는데, 그것은 이항 반복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enantiodynamique 음양론이다. 상징적으로 빛과 어둠으로 표현되는 이 두 범주는 일반적으로 양은 능동적, 음은 수동적, 그리고 남성적·여성적 등의 성질로 표현되어 대립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하나가 없이는 그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상호 보완적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르네 게논이 잘 지적하였듯이,<sup>26)</sup> 순수 양인 하늘과 순수 음인 땅은 본질(행위)과 실체

25) M.-L. von Franz, 앞의 책, p. 110: “dans beaucoup de langues, ‘l’autre’ désigne purement et simplement ‘le second.’ [...] ‘L’autre’ peut avoir une signification ‘sinistre,’ ou bien l’on ressent l’autre, tout au moins, comme adversaire ou étranger.”

(힘)를 나타내는 두 극을 이루지만 하늘과 땅으로 둘러싸인 이 세상에서 창조된 만물은 절대 순수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창조되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 양과 음의 조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한 쪽이 없어서는 성립될 수 없는 이 두 개념은 항상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양과 음이라는 말은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의 대조적인 양상 *aspects antithétiques*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한 마르셀 그라네의 지적<sup>27)</sup>은 그 개념의 의미 영역의 폭을 가장 넓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항 교체의 반복이 계속되고, 두 항목들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 구체적인 시공간에서 방향성을 갖는 전개가 이루어진다. 이 진행 과정을 셋이라는 수가 재현하고 있다.

### 3) 세계와 인간 의식 안에서 실현화 과정으로서의 셋

재현할 수 없어 인간의 의식으로 인식할 수 없는 하나에서 생명의 창조를 준비하기 위해 상보적인 이중적 통합체로 분극 *polarisation*되는 짝으로서의 둘의 전개는 아직 형이상학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어 구체적인 면모를 형상화할 수 없다.

르네 게논은 두 종류의 삼항(*ternaire, triade*) 구조를 제시하면서 형이상학적 원리와 창조라는 두 차원의 역동적 관계를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다. 첫번째 삼항 구조는 우리가 이제까지 따라왔던 단일 연속체의 하나와 이중적 통합체의 둘이 결합한 삼항(1+2)이다. 또 다른 삼항 구조는 짝에서 하나가 창조되는 과정(2+1)에 있다.<sup>28)</sup> 이 두 구조가 모두 그 합이 3이라는 총량적인 면에서는 같아 보이지만, 질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전혀 동등하지 않으며 차원을 달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구조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첫번째에서 하나는 둘의 형이상학적인 원리이고, 두번째에서의 하나

26) R. Guénon, *La Grande triade*, Gallimard, pp. 39~41.

27) M. Granet, *La Pensée chinoise*, Albin Michel, p. 103.

28) R. Guénon, 위의 책, chap. II.

는 둘의 결과물이자 창조물이라는 점이다. 계농은 이 구조들의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동양 사상의 용어를 빌리고 있다. 그에 의하면 첫째 구조의 삼항은 태극·하늘·땅으로, 두번째 구조의 삼항은 하늘·땅·인간이 된다. 우리가 위에서 인용했던,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는 『노자』 42장과, “이러므로 역(易)에 태극이 있으니, 이것이 양의를 낳고, 양의는 사상을 낳고, 사상은 팔괘를 낳는다”는 『주역』의 「계사상전(繫辭上傳)」을 살펴보면, 하나는 태극이요 둘은 양의(兩儀), 즉 음양을 말함이다. 여기에서 태극은 모든 분리 이전의 시원이자 궁극인 통일체를 나타내는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 통일체에서 음양의 양상이 보이고 이 음양의 순수체는 하늘과 땅이다. 이제 첫번째 구조의 삼항은 이렇게 1태극+2하늘, 땅으로 이해가 된다. 하늘과 땅은 존재 발현의 두 극pôle을 상징한다. 이 두 극은 본질과 실체라는 상충의 극과 하충의 극으로 말할 수 있고, 그 중간에 존재자 전체가 자리잡게 된다. 모든 존재가 발현하기 위해서는 이 두 극이 합쳐져서 통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둘은 다시 하나의 존재 안에 합쳐지고 다양한 조합이 이루어진다. 이제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는 위의 인용문이나, 셋을 다수의 세상과 관련짓는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sup>29)</sup> 인간도 세상 안의 만물과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의 상호 작용의 산물인데, 가장 조화로운 산물이라는 면에서 만물의 중심을 상징한다. 인간이 두 극을 결합하는 매개항 또는 다리 pont를 상징한다.

이렇게 하늘과 땅, 그리고 그들의 자식인 인간의 세 항목은 수직적인 축을 이루고 시공간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어 나간다. 이것이 중국의 천지인(天地人) 사상이다. 주역의 팔괘는 천지인을 상징하는 3효(爻: 효는 양·음)을 나타내는 두 가지 종류(—, --)의 부호이다)의 여덟 가지의 조합으로 존

29) M.-L. von Franz, 앞의 책, p. 120: “Avec le trois, quelque chose de nouveau apparaît dans la représentation du nombre. Dans Moi-Toi, le Moi se trouve encore en état de tension avec le Toi, mais ce qui est au-dessus, le ça, le tois, le multiple est le monde.”

제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 팔괘가 중첩되어 이루는 6효는 그 조합이 64가지가 되며, 이 64괘는 전체 세계의 가능한 64가지의 양상을 의미하는 우주적인 전체 구조를 이룬다.

이렇게 본다면, 3이라는 수는 하나의 전체가 잠재적인 가능태에서 스스로 제 모습을 드러내며 역동적인 전개를 하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일체와 이중체의 통합인 전체<sup>30)</sup>로서의 3에서 비로소 일련의 수의 전개 la série des nombres가 시작된다. 많은 신화와 동화에서 삼원함으로 이루어진 상황들이 역동적으로 사건의 전개를 이끌어가는 것을 자주 보는 것은 3이라는 수 원형과 전개 개념의 이러한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 사상의 변증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삼항 구조가 2원적인 리듬에 대칭의 축을 설정하면서 시공간의 '진보'의 개념을 끌어들이는 것 또한, 셋이라는 수가 역동적인 전개 과정을 재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개는 확산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퇴행적이라 할 수 있는 통합적인 방법으로 나아간다. “하나에서 둘이 나오고 둘에서 세번째인 하나가 나온다.” 우리가 위에서 들었던 구체적인 예들로 이 명제를 다시 써보면, ‘하나의 태극에서 하늘과 땅이라는 둘이 나오고, 이 둘에서 새로운 하나인 인간이 세번째 나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 하나와 세번째 하나는 차원을 달리한다. 첫번째 하나, 즉 단일 연속체는, 다시 한 번 상기하자면, 셀 수 없고 한정할 수 없어 우리 의식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이다. 인식 행위를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타자’가 개입하여 분극되고 개체화된 하나가 도출되어야 한다. 셋이라는 수는 이 인식된 하나가 드러나는 과정이다. 세번째 하나는 분절되지 않은 무의식의 내용이 의식으로 떠오른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로써 2의 주기적인 진동의 울동에 축을 형성하여 방향성을 주는 3은 시간과 공간의 기준을

30) 전체의 근본은 3이다. 하나의 단일체는 형태를, 둘은 물질을 나타내고, 이 둘을 합한 3은 전체를 나타낸다(M.-L. von Franz, 앞의 책, p. 117 참조).

형성하게 되어 인간, 특히 인간의 의식이 개입되는 시초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서로 다른 차원의 두 종류의 통합체로 말하자면, 세번째 하나는 첫번째 하나의 수직적 반영으로 관련지을 수 있다. 의식의 내용은 무의식의 반영으로 볼 수 있고, 인간은 태극의 반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체화 과정 individuation과 자아 실현화 과정(동양의 수도(修道) 과정)은 창조 과정을 역추적하며 원초적인 하나로 통합해나가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

#### 4) 구체성을 띤 닫힌 구조로서의 전체 모델의 넷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네 점은 삼차원에서 최초의 개체적인 형태 corps를 낳는다. 이는 넷이라는 수가 닫힌 구조를 갖는 전체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한계-수 nombre-limite'의 의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이 공간을 인식하는 방위 기점은 기본적으로 네 방위나 여덟 방위로 이루어지고, 시간의 흐름은 네 계절로 분절되어 인식된다. 이렇게 인간의 의식은 어느 것으로부터 구별되지 않아 인식 불가능한 우주의 단일 연속체, 즉 하나를 넷으로 분할된 대상으로 파악하며 그 전개 of 흐름을 '전체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결국 넷이라는 수는 전체 혹은 원을 분할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정되어 유한한 구조를 지나는 모든 것에서 넷이라는 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셋이라는 수가 단일체의 역동적인 전개의 양상을 퇴행적인 통합의 방법으로 보여준다 하더라도, 이 전개는 아직 수열이 계속되려는 무한의 여지가 통합되려는 힘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넷이라는 수에 와서야 무한으로 확장하려는 힘은 하나로 통합되어 유한한 현실의 그릇에 잡히게 된다. 이는 넷이라는 수가 하나의 전개가 마무리되는 한계-수이고, 통합된 하나는 육체에 담기기 때문이다. 수의 기본적인 전개는 넷에서 끝나고 그 이후의 전개는 이 기본적인 전개를 반복·발전시켜 나가게 된다.

다섯은 일반적으로 '중심이 잡힌 넷'으로, 주사위 모양의 '하나로 통합

된 넷'의 모습이다. 중국에서 다섯은 통일을 나타내는 하나이고, 다른 요소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며 항상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전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고 통합과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된다. 서양에서도 다섯을 나타내는 정수(精髓) quintessence는 가장 잘 다듬어지고 가장 오묘한 정신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내재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모든 요소들을 순환하면서 공들여 만들어진 것으로 여길 수도 있는데, 어쩌면 내재된 것이 공들인 과정을 통해 발견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보면, 원래 있는 단일 연속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인간의 의식에 떠오르는 것과 이 정수의 발견을 같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양에서는 삼위일체 도그마가 극성한 중세 때에도 기질의 분류나 연금술의 단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4원소론에서 넷이라는 수는 여전히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는 넷이라는 수가 우주적 차원, 그리고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물질적 차원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의 불완전성을 나타내는 물질성이 악과 연결되어 있음을 상징하고 멀리하려고 노력하였던 중세 때의 기독교의 삼위일체 사상<sup>31)</sup>은 따라서 하나와 셋을 강조하였음과 대비하여 둘과 넷의 기피까지가 아니라면 무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복음자(四福音者)가 네 귀퉁이”<sup>32)</sup>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서양 고대 중세의 그림은 역사적으로 인정받은 ‘정통 교리’에서 강조되는 것과는 별도로 감춰진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31) 르네 게논은 극동아시아의 삼함 구조 la triade 사상과 기독교의 삼위일체 la trinité 교리가 똑같이 삼이라는 수와 연관성을 갖지만, 3이라는 수가 갖는 구조면에서는 전혀 다름을 지적하고 있다. 전자가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두 항과 이 두 항의 상호적인 작용으로 인한 통합에서 나오는 제3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간 관계에 비유한다면 부·모·자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면, 후자에서는 앞선 두 항이 전혀 상보적이지 않고 오히려 두번째 항은 첫째로부터 나온 것이며, 제3항 Saint-Esprit 역시 이 처음의 두 항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R. Guénon, *La Grande triade*, Chap. 1: 'Ternaire et Trinité' 참조).

32) 이부영, 『분석 심리학』, p. 100.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도 천사·동물 둘이 네 방위에 배치된 이미지를 자주 볼 수 있다.

것 같다.

### 3. 만다라

—중심 잡힌 넷의 구조

서양에서 2가 동일성을 저해하는 타자성 l'altérité을 나타내며 물리쳐야 되는 대상과 연관되고 통합과 전개를 나타내는 3까지만이 강조되었다면, 동양에서는 존재에서의 이 타자성의 필수불가결함을 인식하고 상보적인 성질을 띠는 2와 2의 자가 분열 형태인 4가 존재를 전체적으로 인식하는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 한 예로 만다라Mandala를 들 수 있다.

만다라 원상은 재현해내는 개인 혹은 문화마다 모두 다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원과 사각이 겹쳐져 있는 구조를 지닌다는 공통점이 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4나 4의 배수로 분할된 원형의 구조<sup>33)</sup>를 지닌다. 이 구조는 '존재의 전체성 la totalité de l'être'에 관한 가장 오래된 사고의 모델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여기 만다라에서 보여지는 사각이 나타내는 것은 하나의 중심에서 나와 4의 양상으로 모두 전개된, "율동적 형상 les configurations rythmiques"의 전체 공간을 드러내는 것이며, 원형의 이미지는 순환과 연관되어 있는 전체로 볼 수 있다. 원이 순환한다는 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중심이다. 그래서 사각과 원이 겹쳐지는 구조에서, 우리가 위에서 언급했던, 주사위 모양의 중심이 잡힌

---

33) C. G. Jung, *Psychologie et alchimie*, p. 126: "Il s'agit toujours, par exemple, d'un système quaternaire, d'une quadratura circuli (quadrupartition du cercle) dont les contenu sont invariablement dérivés des dogmes lamaïques"; M.-L. von Franz, *Nombre et Temps*, p. 182: "Tous les rythmes indiqués ici sont des structures de mandala. Ils sont par conséquent circulaires et divisés par quatre ou des multiples de quatre"; J. Chevalier & A. Gheerbrant, *Dictionnaire des symboles*, 'Mandala' 항목 참조.

넷, 즉 다섯을 보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또 한편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원 안의 사각은 전체의 네 가지 양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용이 심리학적으로 보았듯이 원은 존재 본래의 전체성을 나타내고 사각은 인간의 의식이 그 전체를 포착할 때의 양상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사상에서는 하늘은 원으로 나타나며 땅은 사각으로 나타난다. 이런 의미에서 만다라 형상은 하늘과 땅이 합쳐져 이루어내는 만물을 품고 있는 세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원 안의 사각으로, 혹은 사각 안의 원으로 이와 같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만다라는 하나와 넷 사이에서 전개와 회귀라는 닫힌 내적 율동을 내포하는 장을 재현한다는 의미에서 공통적으로 우주의 안정적인 이미지를 상징하기도 한다.

연금술에서도 이러한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이론에 의하면 원초적인 물질 *matière première*은 하나이지만 이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4원소 *quatre éléments*란 이 물질의 양태들 *modalités*, 혹은 상태들 *états*을 가리키는 것이다.<sup>34)</sup> ‘금을 만든다’고 알려진 연금술의 비법은 4원소의 순환적 변환의 움직임에서 물질적 법칙의 비법을 깨달아가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네 가지 상태를 순환하면서 정화되는 물질은 작품(*l'opus*, *l'oeuvre*, *pierre philosophale*, 화금석(化金石))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 결정물은 물질 세계에만 속한다고 할 수 없는 신비한 물체 *un corps mystique*로 중심을 되찾을 때 현현한다고 한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연금술에서 말하는 원초적인 물질 자체가 만다라의 구조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종교적 제례와 수행에서 만다라의 원형 이미지가 명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원상이 재현하고 있다고 믿는 우주의 객관적 이미지가 주체의 정신을 정화하고 고양시켜 깨달음 *l'illumination*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에 적합

34) S. Hutin, *L'Alchimie*, 'Que sais-je?' P. U. F., pp. 69~74.

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만다라의 중심은 다양한 문화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만, 일반적으로 그 문화가 지니고 있는 가장 고귀한 가치를 지니는 종교적인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 형상이 인간 정신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알 수 있다.<sup>35)</sup>

용이 주체적인 자아(自我) le moi와는 다른 자기(自己) le soi<sup>36)</sup>라는 중요한 원형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이 원형이 만다라의 이미지로 자주 나타난다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점에 주목하게 되는데, 그 하나는 전체성이고 또 하나는 중심의 개념이다. 용에 의하면, 우리 심리는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여 전체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만다라 또한 전체의 구조를 보여주는 원상(原象)이라는 의미에서 자기 원형과 만다라 원상과의 상동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만다라라는 원형 심상이 펼쳐진 세계와 그 세계를 제어하여 조절하는 중심을 나타내고 있다면, 자기라는 원형 역시 자아라는 의식 세계를 너머 무의식까지 확장된 것으로 그 무의식에서 전체 원형들을 총괄하는 조절 능력이 있는 중심으로 자리잡는다는 것이 용의 심층 심리학의 주요 전제이기도 하다.

대우주인 세상과 소우주인 인간 정신 모두에서 드러나는 구조로서 만다라, 즉 중심이 되는 원형이 상호 교감을 이루는 것은 정신적이면서 물리적인 에너지의 장을 재현하고 있기 때문임을 인식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

35) Jung, *Psychologie et alchimie*, pp. 129~30.

36) "자기 Selbst란 의식과 무의식을 통틀어 하나인 그의 전부를 말한다. 이것이 원형으로 다루어지는 이유는 전체가 되고자 하는 기능이 원초적으로 인간에게 조건지어져 있다는 견해에서 온 것이다. 인간의 무의식에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전체가 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 자기 자신이란 글자 그대로 그 사람 자신을 말한다. 어느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사람의 전체'를 말한다는 뜻에서 진정한 의미의 개성 individualität과 같은 말이다. 이 개성은 의식에 나타나 있는 자아의 일화성이나 특수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무의식을 통틀어 전체로서의 그 사람의 전 성품을 말한다.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전부'이다. 그 사람의 '본성'이다. [……] 있는 그대로, 즉 如如하다는 뜻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眞如의 개념과 비길 수 있다. 혹은 불성·법신이 모두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인 마음, 일심에 도달하고자 하는 불교적 추구가 모두 자기 자신 Selbst의 전일 Vereinigung에의 지향과 같은 길을 향하고 있다" (이부영, 『분석 심리학』, pp. 98~99).

요하다. 전체 에너지의 장은 원으로 나타나고 사각은 이 전체의 변모하는 양상의 전개를 나타낸다. 원과 사각이 공유하고 있는 중심은 이 모든 것의 원천이면서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하나에서 나와서 넷으로의 전개, 그리고 다시 하나(다섯)로의 통합의 이 질서를 나타낸 것이 수의 원형이다. 원형들이란 원초적으로 정신 에너지의 역동적인 통합체 단위들을 재현한 것이다.<sup>37)</sup> 자연수란 원형적 질서 l'ordre archétypique가 의식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율동적 전개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질을 나타내는 장'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성적(定性的)인 성격은 초기 — 5까지의 혹은 최대 10까지의 — 자연수에서 잘 나타난다. 반면 수의 양이 진행될수록 상징적 에너지는 약화된다. 이러한 수 원형들의 전체 구조가 잘 드러나는 이미지 중의 하나인 만다라의 예를 들었다. 4까지의 전개가 드러나고 그 전개는 중심에 의해 통제되어 있어 '중심 잡힌 넷,' 즉 다섯까지의 초기 자연수의 구조가 잘 드러나 있어 세상 전체의 이미지, 또는 우리 정신의 밑바탕인 '자기'의 이미지라는 다층적인 의미를 띠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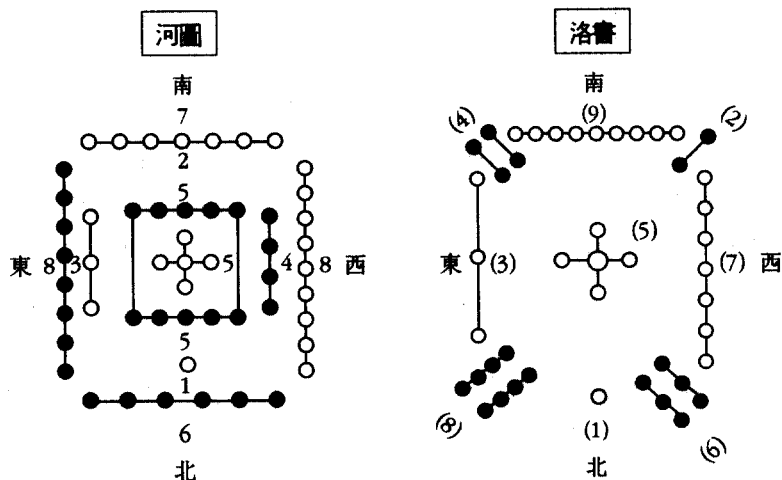
## 4. 수 만다라

### I. 하도와 낙서

형태상의 넷이라는 수로 접근했던 만다라를 정리하면서 초기 자연수들로 이루어진 수로 나타낸 만다라 모델을 내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자체 내부에 율동적인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는 정성적인 의미를 띠는 수의 원형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수로 나타난 만다라'라 할 수 있는 이 모델이란, 우주적 질서를 재현한다고 알려진 중국의 하도(Ho-t'ou, ordre de Fou Hi)

37) M.-L. von Franz, p. 163: "Les archétypes représentent, au niveau primaire, les unités dynamiques de l'énergie psychique."

와 낙서(Lo-chou, ordre du roi Wen)라는 모델이다.



우선 그림을 설명하자면 두 그림 모델은 그룹지어진 동그라미들의 수들로 배치된 구도이다. 색이 다른 두 종류의 동그라미로 말하면, 홀수들에 할당된 하얀색이 양을 나타내고, 짝수들에 할당된 검은색이 음을 나타낸다. 왼쪽에 있는 하도는 네 방위에 따라 그룹지어진 두 종류의 수들로 배치되어 있다. 아래쪽에 나타난 북쪽이라는 방위를 기준으로 보면 북쪽에는 1과 6, 왼쪽의 동쪽엔 3과 8, 위상단의 남쪽에는 2와 7, 오른쪽 서쪽에는 4와 9의 수가 자리잡고 있고, 가운데 중앙에는 5가 그리고 그 주위를 10이 둘러싸고 있다. 위에서도 이미 언급했지만 우주의 구조를 음양의 상호 작용을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는 이 구도에서 방위는 매우 중요하다. 배치된 수 집합의 성질을 나타내주기 때문이다. 수 집합이 배치된 네 방위뿐만 아니라 홀짝수로 나타나는 양·음수의 배치도 의미심장하다. 북동쪽에서는 양수가 안에 들어가 있고 남서쪽에서는 양수가 바깥에 나와 있다. 이는 북동쪽에서는 안에서부터 태동하여 바깥으로 나오려는 양을 음이 감싸안은 상이고 남서쪽에서는 이미 바깥에 나온 양을 지나치게 분

산하지 않도록 안에서 음이 전제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음양이 엮물려 있는 태극도를 그대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대립하는 음양은 통일된 우주의 구도를 지니게 된다. 이 구도도 '중심 잡힌 넷'의 구조로서 5까지의 기본적인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다. 10까지의 수들이 구도에 나타나지만 6부터는 이 기본수에 중심을 나타내는 5를 더하면 전개된다. 그래서 1과 6, 2와 7, 3과 8, 4와 9, 5와 10은 같은 성질을 띠는 수들로 같은 방위에 배치되어 있다.

## II. 음양오행상으로 본 수 만다라

이 '수의 구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양오행론'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동양에서 5까지의 기본 자연수는 기가 운행될 때의 다섯 가지의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이 된다. 그러므로 수가 양을 측정하는 계산의 도구이기 이전에 존재의 상태를 상징하는 성질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하도·낙서의 모델은 동양 사상의 바탕이 되는 상수(象數) 이론의 기원으로 알려져왔다. 그러면 상수 이론이란 무엇인가? 동양인들에게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우주, 자연으로 대변할 수 있는 우주는 서로 상반되는 기운(음양)의 움직임에 따라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생명을 지닌 유기체(통일체로서 태극으로 나타난다)로 여겨졌다. 이 기운을 음양이라고 이름 지었고, 음양의 규칙적인 움직임에 따라 우주는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변화된 상태들을 크게 다섯 가지의 상으로 나누어본 것이 오행이다. 오행의 개념에는 음양 운동이 다섯 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변화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 오행은 木火土金水이다. 그러나 이 오행의 개념이 일상 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나무나 불과 같은 물질만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이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그와 같은 물질의 명칭을 떠올리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깊은 이해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木火土金水는 무엇인가. 이는 기운(氣運)을 나타내는 상(象)이다.

상(象)이란 형(形)과는 구별해야 하는 개념이다. 상은 형과는 달리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기미·정조만을 느낄 수 있을 뿐이다. 형태가 이루어지기 전에 존재의 기운이 드러나는 것이 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변화하는 모든 사물이 드러내는 변화 상태는 무한정 잡다하다. 그 무한수의 기미를 포착하기 위하여, 이 변화들이 규칙적임을 선현들이 간파하고 그 구도를 후세에 남겨놓은 것이 하도·낙서의 구도이자, 역학 체계이고 음양오행 이론이다. 이러한 구도에서 그 규칙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수(數)를 들 수 있다. 그래서 동양 사상의 바탕을 이루는 근본을 상수(象數) 이론이라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행의 개념으로 우리는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가. 우주의 기운은 하나이다. 이 하나의 기운이 다섯 단계의 운동을 하는 양상을 오행의 개념은 나타내고 있다. 서양의 사원소 quatre éléments와는 달리 — 원소를 물질이 아닌 상태의 표현으로 본다 하더라도 — 동양의 오행 개념은 존재의 역동성을 훨씬 잘 표현해내고 있다. ‘행(行)’이란 개념은 오고 가는 가역적인 반복 운동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오행이란 다섯 단계를 거치면서 기운이 취산(聚散)·순환(循環)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木火는 생명이 나서 성장하는 생장(生長) 기운을 나타내는 상이고 金水는 생명이 여물어 거두어지는 수장(收藏) 기운을 나타내는 상이다. 그리고 土는 상반되는 이 두 기운을 중간에서 중재하여 생명 운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기운의 상이다.

한 기운이 생명의 흐름에 따라 다섯 가지 모습으로 운동 변화하는 법칙을 나타내는 하도의 구도는 춘하추동의 4계절에 따라 관찰된 기운의 변화하는 상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운의 자연스런 흐름을 나타내어 오행의 기운이 서로서로 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도의 상이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함으로써 木—火—土—金—水의 순서를 따른 오행상생도(五行相生圖)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오행이란 만물이 생하는 기본 법칙이다. 그러면 왜 만물은 오행의 단계를 따라 생성하게 되

는가. 지구를 중심으로 해[日]와 달[月]의 기운이 교차되면서 만물의 생장 수장(生長收藏)의 현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일월의 기운이 음양을 이루고 水火(坎三離三)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오행 개념을 살펴보고 나서 하도를 보면 음양의 수로 이루어진 이 구도의 내용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다. 중심이 있는 4방위로 배치되어 있는 이 구도에 음양오행을 적용해보면, 3-8木, 2-7火, 5-10土, 4-9金, 1-6水로 연결된다. 각각의 오행마다 양수(1, 3, 5, 7, 9)와 음수(2, 4, 6, 8, 10)가 짝지어 있다. 이렇게 각각의 방위에서 오행을 이루는 음양의 두 수는 모두 합하여 10이 되는데 이 10까지의 수에 상응하는 오행의 이름과 하도의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甲陽木, 8乙陰木, 7丙陽火, 2丁陰火, 5戊陽土, 10己陰土, 9庚陽金, 4辛陰金, 1壬陽水, 6癸陰水가 그것이다. 이 10가지의 상(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은 열 가지의 천간(天干)을 이루게 된다. 천간이란 하늘의 주요한 기운을 말함이다. 우주의 만물은 음과 양의 조화로써 존재할 수 있다. 정(精)과 신(神), 신체와 기운 등등 항상 서로 상반되는 것들의 조화로운 합체를 만물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제 한 동양학자의 해안을 따라 음양수를 눈여겨보며 하도·낙서를 살펴보자. “火의 위(位)를 하도에서 보면 7은 외부에서 발하고 2는 내부에서 그의 발산 작용을 견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6-1수와 8-3목으로 나타나는 水木 과정에서는 6이나 8의 음은 형을 만들고 또는 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표면에 있으면서 확장되는 존재였는데, 2-7화와 4-9금의 과정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음이 내부에 있으면서 오히려 양의 발산을 견제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불[火]이 만일 분열하게 되면 반드시 형(形)을 잃게 될 것인즉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므로 하도의 상이 이와 같이 표시된 것이다.”<sup>38)</sup>

38) 한동석, 『우주 변화의 원리』, pp. 138~39.

오행에는 상생 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생하는 작용을 이루기 위해서 이면에서는 반대 성질을 지닌 작용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상극 작용(相克作用)이라 한다. 이 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대립을 통한 통합'을 이루며 발전해나가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동양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몹시 중요한 몫을 이룬다. 낙서의 모델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먼저 하도와 낙서를 대조해보면 하도에서는 남방(南方)과 서방위(西方位)에 있던 2-7화와 4-9금이 낙서에서는 남방에 4-9와 서방의 2-7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金火交易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앞서 근본적으로 하도와 낙서의 모델은 상생과 상극이라는 반대의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우주 기운의 생하는 모습의 이면에는 항상 반대 성질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오행의 흐름을 보여주는 모델도 두 종류의 구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오행의 상생 작용은 水木火土金의 순서를 따르는 것으로 하도의 상에서 보면 북방에서 시작하여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오행 기운을 생하였는데, 오행의 상극 작용은 水火金木土의 순서를 따르는 것으로 낙서의 상을 北方水 기운에서 시작하여 시계 반대 방향인 오른쪽으로 돌면서 이 순서를 따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오행 기운이 상생과 상극 작용을 동시에 하는 것은 양기운과 음형(陰形)을 동시에 이루면서 통일체로 발전해나가기 위함이다. 이러한 이유를 고려하며 낙서의 상을 살펴보면 金이 火를 모두어 들여 다시 水로 돌아가서 새로운 木을 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金이 火를 모으는 金火交易의 중요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火가 자기의 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되는 水의 제재를 필요로 하고, 金의 성질은 표면에서 이면으로 양기를 품으면서 보호하기 위해 겉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인데 안에 있는 양은 이 견고한 보호 아래에서 부드러워야 한다. 이러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火의 견제가 필요하다. 木과 土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실생활에서도 나무가 제 형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금속 도구로 다듬

어저야 하듯이 木의 외적 형태를 이루는 데는 金 기운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오행의 상극 작용은 상생 작용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건임을 알 수 있고 상극 작용보다는 상보 작용의 의미가 더 크다 하겠다.

하도와 낙서는 시간을 초월한 우주의 법칙과 시간 안의 존재를 위한 변화의 구도를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생하여주는 법칙과 이 상생 작용을 반대 성질로 균형잡으며 실존을 변화 형성해나가는 상극 작용의 구도라 할 수 있다. 양수와 음수의 결합 구도, 여기에 더하여 두 종류의 양음수 구도는 통일체로서의 존재 양상을 파악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일임인 것이다.

### III. 역동적 원형상의 활용: 시간과 공간의 질적 인식

동양(특히 극동아시아)에서 수를 통해 살펴본 원형상들이 드러내는 음양오행의 우주론적 역동 구조는 그 의미를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외삽 범위를 넓히며 거의 모든 분야의 탐구 바탕을 이룬다. 철학적으로 접근하면 형이상학이 되며, 실용적인 접근에서는 일종의 자연과학의 방법을 제시하며, 학식과 기술을 아우르면서 종교·천문·지리·정치·사회 제도·의술·군사 등등에 이론적 바탕을 이룬다.

한자어의 지구상의 의미 자체에서 우주라는 말은 무한한 공간과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삼라만상의 존재가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은 이 시공간 안에서이다. 이 공간과 시간을 인식하는 방법이 음양오행의 역동 구조로 의미 분절되어 해석되기 때문에 어느 한 영역을 넘어선 이러한 구조의 적용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초기 기본 자연수로 이루어진 만다라상으로 나타난 하도·낙서에서 시작하여 오행 구조를 지닌 10천간(天干)과 12지지(地支)의 변화상으로 전개되면서 하늘의 기운을 드러내는 10천간과 땅의 기운을 나타내는 12지지가 결합하여 다양한 만물의 형상을 만들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간지가 합쳐진 상은 10과 12의 최소 공배수인 60

간지의 변화의 상이 나온다. 이 60간지는 무한한 공간과 시간을 분절하는 단위가 되어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어느 시공간의 질적 양상aspect qualificatif을 보여주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분절 단위는 항상 전체와 상관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동양 사상은 구조적이라고 할 수 있어 그 분절 단위의 의미는 상대성을 띠게 된다. 60간지의 하나하나의 간지는 시공간을 분절하지만 무한히 순환함으로써 하나의 세계인 전체를 재현하게 된다.

동양의 책력은 양적 숫자만이 아니라 순환하는 간지들로 인해 질적 양상들로 채워져 있고 시간의 개념 또한 주기적으로 반복·순환한다. 공간 개념도 마찬가지이다. 시간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공간의 방향을 채우는 것 역시 숫자들이 아닌 60간지로 이루어져 있음은 지리에 관련된 도구인 나경(羅經)이라는 나침반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역사가 2000년이 넘는다는 이 도구는 풍수지리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서, 중앙에 남북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바늘이 있고 이 중앙을 여러 개의 동심원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 동심원들의 방위들에 음양오행을 나타내는 팔괘, 10간, 12지가 있다.<sup>39)</sup>

## 5. 마무리하며

초기 자연수에서 시작하여 '만다라' 원상과 동양의 '수로 이루어진 만다라' 상이라 할 수 있는 하도·낙서 모델, 그리고 그 모형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음양오행론과 그 상들이 보여주는 변화들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진행된 흐름에서, 시간(현대 심리학 연구와 고대 동양 연구)과 공간(동·서양의 간극)의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문화에서 길어온 예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목을 끄는 일관성 있는 공통점들이 눈에 띄는 것은 몹시 흥

39) 최창조, 앞의 책, pp. 161~64 참조.

미로운 일이다. 그 공통점들은 수가 우주론적 구조를 드러내줄 수 있는 원형 구조라는 것과 그 원형은 '하나의 세계'를 배경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체 구조의 질적 양상을 드러내는 율동적인 형상을 지닌다는 것, 그리고 이 형상은 우주의 생기(에너지)의 유기체적 현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오행 운동에서는 안과 밖의 이중적인 움직임의 역동적인 조화로서 존재에서 대립되는 것의 상호 보완성을 주목하게 되는데, 이는 생(生)이 보여주는 역설과 모순은 대립되는 것들을 통한 균형 잡기에서 기인한 것이며 이는 삶의 역동성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이러한 조화(역동적인 통합)의 기반이 '원초적인 하나의 세계'로 나아가도록(재통합되도록) 한다는 것을 감지하게 한다.

동양의 추구는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sup>40)</sup>는 이와 같은 우주론에서 분화된 만물의 상태에서 ‘처음의 하나(道, 太極)’로 되돌아가려는 회귀의 추구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처음에 인지할 수 없었던 ‘하나의 세계’는 대립되는 것들의 조화로운 균형 *coincidentia oppositorum* 안에서 이성이라는 한정된 우리의 인식역(認識域)보다는 좀더 넓은 정신 세계에 떠오르게 되는 것은 아닌지…… 만다라의 원상으로 나타난다는 자기의 원형이 그러한 한 예일 것이다.

모양새가 같은 존재가 하나도 없음은 ‘우리가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사는 시공간을 이루는 우주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전체가 이루는 변화는 순환 운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전체의 국면들이 질적 양상으로 재현되므로, 우리는 전체가 이루는 변화 운동의 구도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로 나타난 것이 원형 심상들이다. 이 원형 심상들은 수 원형 심상들과 연관되면서 우주의 질서를 재현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40) 『노자』 42장: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이러한 원형 심상들이 인간의 일상 생활과 학문에 응용되면서 여러 방면의 문화적 현상과 작품이 전개되어왔다. 따라서 역으로 문화적 생산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 원형 심상의 연구는 그 의미 생산과 의미 해석에 있어 필요하다고 하겠다.

### 참고 문헌

- 조셉 니담, 이석호 · 이철주 · 임정대 옮김(1988), 『중국의 과학과 문명』  
I·II·III, 을유문화사.
- 이부영(1998), 『분석 심리학: C. G. Jung의 인간 심성론』, 일조각.
- 최창조(1984), 『한국의 풍수 사상』, 민음사.
- 프리츠프 카프라, 이성범 · 김용정 옮김(1989), 『현대 물리학과 동양 사상 *The Tao of Physics*』, 범양사.
- 풍우란(馮友蘭), 박성규 옮김(1999), 『중국 철학사』 상 · 하, 까치.
- 한동석(1966), 『우주 변화의 원리』, 행림출판.
- A. Beguin(1939), *L'Ame romantique et le rêve*, José Corti.
- C. G. Jung(1953), *Métamorphoses de l'âme et ses symboles*, 1953.
- (1970), *Psychologie et alchimie*.
- (1979), *Commentaire sur le mystère de la fleur d'or*, Albin Michel.
- (1980), *Mystérium conjunctionis*, 2 vol., Albin Michel.
- Colloque de Cordoue(1980), *Science et conscience: Les Deux lectures de l'univers*, Stock.
- G. Bachelard(1960), *La Poétique de la rêverie*, P. U. F.
- G. Durand(1960), *Les Structures anthropologiques de l'imaginaire*, Dunod.
- (1964), *L'Imagination symbolique*, P. U. F., (진형준 옮김, 『상징적 상

상력』, 문학과지성사).

G. Durand(1979), *Figures mythiques et visages de l'oeuvre*, Berg Inter.

——(1980), *L'Ame tigrée*, Denoël.

——(1996), *Introduction à la mythodologie*, Albin Michel(유평근 옮김,  
『신화 비평과 신화 분석』, 살림).

H. F. Ellenberger(1974), *A la découverte de l'inconscient: histoire de la  
psychiatrie dynamique*, Simep-éditions.

JUNG et Kerényi(1953), *Introduction à l'essence de la mythologie*, Payot.

Lao-Tseu(1989), *Tao Tö King, in Philosophes taoïstes*, Biblio. de la Pléiade.

Matila Ghyka(1952), *Philosophie et mystique du nombre*, Payot.

M. Eliade(1963), *Aspects du mythe*, Gallimard.

——(1952), *Images et symboles*, Gallimard.

——(1962), *Méphistophélès et l'androgynie*, Gallimard.

M. Granet(1968), *La Pensée chinoise*, Albin Michel.

M.-L. von Franz(1978), *Nombre et temps*, Paris: La Fontaine de Pierre.

——(1995), "Quelques réflexions sur la synchronicité," *La Synchronicité,  
l'âme et la science*, Albin Michel.

——(1984), "Psyché et matière dans l'alchimie et la science moderne,"  
*Cabier de l'Herne: Carl Gustav Jung*, édition de l'Herne.

——(1983), 「과학과 무의식」, 설명환 옮김, 「존재와 상징」, 동천사.

R. Guénon(1957), *La Grande triade*, Gallimard.

R. Wilhelm(1973), *Yi King: Le Livre des transformations*, Librairie de  
Médicis.

S. Hutin(1981), *L'Alchimie*, 'Que sais-je?' 6<sup>e</sup> édition, P. U. F.

V. Hugo(1970), *Œuvre complètes de Victor Hugo*, édition chronologique,  
publiée au Club Français du Livre.

## Recherches sur l'imaginaire et les archétypes culturelles: L'Archétype des nombres naturels et les Mandalas

**Kim Hi-Kyung**

La révolution épistémologique radicale qui a été lancée au début du 20<sup>ème</sup> siècle par la physique moderne dont les représentants sont la théorie de la relativité et la théorie des quanta, aboutit à une modification non moins radicale de la conception de l'objet. Heisenberg, un des physiciens modernes, a exposé 'le principe d'incertitude.' C'est dire que la notion d'une entité physique ne peut être définie qu'en fonction de ses rapports avec l'ensemble, et que ces liens sont de nature statistique, probabilités plutôt que certitudes. Aussi les notions classiques qui se basent sur la notion d'une entité physique distincte rétrécissent-elles de moins en moins leur validité. On voit désormais que le monde subatomique apparaît comme un tissu de relations entre les diverses parties d'un tout unifié.

D'autre part, la découverte de l'inconscient comme un continent perdu fait aussi avancer la transformation épistémologique. Notre personnalité qui était considérée jusqu'alors n'être composée de rien d'autre que du champ de conscience centré sur le moi, comprend

désormais aussi un domaine infiniment vaste d'activités psychiques inconscientes. C'est en recherchant 'l'inconscient collectif' que Jung observe 'le phénomène de la synchronicité' dans lequel on pourrait reconnaître une corrélation entre un phénomène psychique et un phénomène ou incident non psychique se passant dans le monde objectif de la matière.

Ainsi le problème de la relation entre la psyché et la matière s'est, au cours du siècle dernier, peu à peu retrouvé placé au centre du débat scientifique. Dans la mesure où les phénomènes de synchronicité manifestent la même structure dans la psyché inconsciente et dans la matière, on voit réapparaître dans une sphère empiriquement observable 'l'unité de l'être' que Jung a désignée du nom d'*unus mundus*. L'idée d'un *unus mundus* repose sur l'hypothèse que toute existence a pour fondement ultime un continuum embrassant toutes choses qui est régulièrement ordonné en lui-même.

L'archétype des nombres naturels pourrait être spécialement relié à l'*unus mundus*. Le nombre, pourrait-on dire, représente la qualité temporelle du continuum unitaire. Si l'on considère les nombres naturels comme des aspects ou des configurations qualitatifs d'un tel continuum unitaire, les nombres individuels sont considérés comme constituant un reflet fidèle du temps connu qualitativement. On pourrait surtout voir que les nombres de la première décade correspondent à une cosmogonie abstraite issue d'une monade.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les quatre ou cinq premiers nombres se présentent comme des phénomènes énergétiques, c'est-à-dire les configurations rythmiques les plus fortes et les plus denses du champ numérique. C'est dans l'image symbolique du mandala que l'on voit bien les quatre premiers nombres

énergétiques.

Les mandalas dont la structure commune, malgré leurs variations formelles, est circulaire et divisée par quatre ou des multiples de quatre, sont considérés comme les plus anciens modèles de pensée concernant la totalité de l'Etre, autrement dit, comme l'équivalent psychique de l'unus mundus.

Dans l'ancienne Chine, il y avait certains arrangements numériques fondamentaux sur lesquels se basaient un grand nombre d'arts et de sciences. Ce sont les modèles Ho-t'ou(河圖) et Lo-chou(洛書) que l'on pourrait tenir pour 'les mandalas numériques.' Selon la vision de l'ancienne Chine, de tels modèles numériques organisaient la totalité du continuum espace-temps de l'univers; ces deux plans numériques chinois du cosmos possédaient un sens symbolique de classification qui s'appliquait à l'ensemble du domaine de la civilisation. Dans ces modèles, des sortes de matrices interprétées comme des 'champs de qualité,' leur numérotation interne ne doit pas être entendue quantitativement, mais comme des phases temporelles de la structure interne dynamique du champ. Ainsi cinq éléments(wu hing, 五行) y correspondent-ils aux cinq premiers nombres. Le modèle Ho-t'ou nous montre cinq éléments classés dans un ordre qui les fait se compléter, par contre, dans le modèle Lo-chou cet ordre les oppose. Pourtant les deux modèles ne sont pas du tout antagonistes, mais complémentaires pour créer l'unité des contraires dans l'existence. C'est pourquoi le concept d'unus mundus est représenté par des symboles souvent composés d'un double mandala figurant, l'un, un ordre intemporel, et l'autre, un ordre lié au temps.

On pourrait ainsi reconnaître, dans les nombres archétypiques

considérés comme des aspects qualitatifs de continuum unitaire, les constantes les plus fondamentales de la nature exprimant l'unité de la réalité psychophysique, dans lesquelles les oeuvres culturelles puisent leur sens profond.